



스산한 가을, 무엇인가 위로받고 싶을 때.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싶을 때. 하지만 이별의 아픔은 피할 수 없고... 발라드 음악은 바로 그런 감성으로부터 태어나 다시 가슴을 적신다. 다비치, 불빨간 사춘기, 박효신, 임창정, 한동근(왼쪽부터)은 그 깊은 감성의 대표주자들이다. 스포츠동아DB

힘들 땐 어떤 노래가 날 위로해주지? 그래, 다시 발라드

이 가을, 다시 부는 발라드 열풍

소리에 대한 최고의 감흥으로 흔히 음악을 꼽는다. 반복노출에 대한 반감이 없는 한 가지를 꼽으라면 이 역시 음악이다. 음악이 들려주는 이야기, 결국 사람이다. 그리고 사랑과 이별이다. 그 과정에서 인간은 갖가지 감정을 경험한다. 그 변화무쌍한 감정의 동반자가 될 수 있는 음악이 발라드다. 발라드 음악은 사랑과 이별을 영원한 주제로 삼는다. 가을이 지나가는 시기, 발라드가 다시 사람들을 사로잡기 시작했다.

다비치·박효신부터 박보검까지
발라드 곡들 가을 음원차트 점령
신승훈 “공감” 거미 “위로의 힘”

감성이 무르익는 계절, 가을에 발라드 잔치 마당이 펼쳐지고 있다. 13일 오후 2시 현재 멜론 실시간 차트 10위권은 발라드 차지다. 다비치 '내 옆에 그대인걸'을 시작으로 불빨간 사춘기 '우주를 줄게', 박효신 '숨', 임창정 '내가 저지른 사랑', 제스키스 '세 단어', 한동근 '이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해'까지 발라드 장르 노래가 상위권을 점령하고 있다. 신용재 '벌레줄게', 박보검이 부른 '구르미 그린 달빛' 삽입곡 '내 사랑' 등도 호시탐탐 진입을 노리고 있다. 아이돌 댄스곡과 힙합곡이 음원차트를 점령하면서 주목받지 못했던 발라드가 차트 상위권을 점령하기는 실로 오랜만이다. 이에 발라드의 열풍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발라드 강점은 '보편성'

현재의 발라드 열풍은 계절적 요인도 크다. 공기가 서늘해지면서 사람들이 감성에 젖고, 정신적 공허를 채우기 위해 감성적인 음악에 대한 소비가 늘어난다. 이로 인해 가을엔 발라드의

공감도 늘어난다.

음악사이트 지니를 운영하는 kt뮤직 최윤선 홍보팀장은 “지난 2년간의 스트리밍 데이터를 분석해 계절에 따른 장르별 소비량을 측정한 결과, 발라드가 사계절 내내 1위였다. 음악에 대한 한국인의 정서는 발라드라는 사실을 세삼 증명해주는 자료”라고 말했다.

그만큼 발라드는 서정성을 강조하는 음악이다. 대부분 사랑과 이별을 노래한다. 발라드의 이 같은 본질이 인간의 보편적 감정에 관한 것이기에 시대에 걸쳐 꾸준히 사랑받는다. 발라드의 보편성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듣고, 또 공감하게 만드는 힘이 된다.

'사랑이라는 이유로'(김광석) '아이 빌리브'(신승훈) 등을 작곡한 국내 대표적인 발라드 작곡가 김형석은 “발라드는 보편타당하게 사람의 감성을 아우르는 음악이다. 멜로디와 가사를 중심으로 감성적인 면에서 전달력도 좋아 언제나 꾸준히 사랑받는 음악”이라고 말했다. 가수 거미도 “발라드는 음악 장르 중에서 남녀노소 폭넓은 층에 가장 사랑 받는 친근한 장르”라고 했다. 발라드는 또 누구나 가지고 있을 법한 사연을 노래하는 까닭에 감정이입을 유발하고, 추억을 떠올리게 한다. 듣는 이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공감을 얻는 것도 그 덕분이다. 그렇게 발라드는 강한 통속성을 얻는다.

'발라드 황제'로 불리는 신승훈은 “발라드는 언제 들어도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이다. 누구라도 그 노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자기화'할 수 있는 장르”라 평했다.

●발라드는 치유의 음악

발라드가 일으킨 공감은 치유로 이어진다. 내 마음을 대변해주는 것 같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같은 감정이 곧 치유다. 1980년대 발라드의 꽃을 피웠던 가수 변진섭은 “발라드의 매력이란 누구라도 주인공이 되게 하는, '나의 이

야기'이며 사연을 담은 노래가 된다는 데 있다. 내가 힘들 때 위로받고 힐링하는 데는 그 어떤 장르보다 으뜸”이라고 했다. 가수 한동근 역시 “노래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서로 공감하고 교감하는 음악”이라며 “공감을 자각하는 순간, 내 안에서 치유의 에너지가 끓어오르면서 지친 하루가 끝나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 가수 거미는 “감성이 풍부하고 '한'이 있는 한국인의 혼을 반영하기에 적합한 장르다. 풍부한 그 감성을 가사로 쉽게 풀어내 표현할 수 있는 편안한 장르가 발라드”라며 “어려운 경제상황에 재난 소식이까지 이어지면서 모두가 힘든 상황이다. 마음을 움직이는 가사와 멜로디가 있는 발라드가 사랑받는 이유도 바로 '위로'가 아닐까”라고 말했다.

●“유행에 밀릴 뿐, 발라드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보편성은 때로 트렌드에 뒤쳐져 보이게도 한다. 어떤 장르가 유행하면, 발라드는 뒤로 밀려나곤 하기 때문이다.

변진섭은 “발라드는 항상 주목 받고, 사랑받았다. 단지 다른 장르가 강세를 보일 때 은은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 뿐”이라고 했다. 신승훈도 “발라드는 공격적이지 않다. 전주가 있고, 기승전결이라는 형식을 갖춘다. 그래서 파괴력이 크다고 할 수 없다. 발라드가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발라드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다. 다른 음악이 잠시 위에 오르는 것이고, 그 음악이 서서히 밀려나면 발라드가 다시 보이는 것뿐”이라고 했다.

그만큼 보편성은 발라드에 기나긴 생명력을 부여한다. 감정의 동물인 사람의 보편적 감성을 노래하기에 영원한 아이템이다. 가수 린은 “어떤 온도(환경)에도 어울리는 음악”이라며 “내 감성에 필요한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 같은 음악”이라고 말했다. 김원경 기자 gyummy@donga.com

드라마 OST로 잘 나가는 발라드 여가수들

■발라드는 남자가수들의 전유물?

발라드가 최근 몇 년간 남자가수들의 전유물처럼 고착되고 있다. '발라드=가을=남자' 공식마저 생겨났다. 발라드의 계절이 왔지만 신곡을 내놓는 여가수를 찾기도 어렵다.

가요계에서는 발라드 여가수의 활동이 저조한 배경으로 몇 가지 이유를 꼽는다. 우선 힙합과 아이돌 그룹이 양분하다시피 한 가요계에서 발라드 여가수가 설 자리를 잃고 있다는 분석이다. 가수들의 주요 활동 무대인 각종 축제 및 행사에서도 발라드 여가수의 선호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수익성'을 따져야 하는 음반사와 제작자 입장에서는 발라드 여가수에 대한 '매출 기대치'가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 음반 제작자는 “발라드 여가수는 수익을

얻기 힘든 구조”라고 짚었다. “행사 섭외에서도 밀리고, 광고에서도 자주 찾지 않는 탓에 오직 음원 판매로 매출을 거둬야 하지만 지금 같은 시장환경에서는 그마저도 쉽지 않다”고 밝혔다.

대신 발라드 여가수가 발굴한 새로운 활로가 있다. 바로 드라마 OST다. 저마다의 실력으로 일군 시장이다. 오히려 더 화려한 성공 기회를 얻고 있기까지 하다. 음원차트를 석권하는 것은 물론 한류시장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기도 한다.

드라마 OST에 참여해 음원차트에 자주 오르내리는 대표적인 발라드 여가수로는 백지영과 린 그리고 거미가 있다. 이들은 '발라드 3대 여제'라는 수식에 어울리는 강력한 파워를 자랑한다. 드라마 시청률이 오를수록 이들이 부른 삽입곡 역시 음원차트 상위권에 빠짐없이 진입한다. 실제로 백지영과 거미는 현재 미니시리즈 시

창률 1위인 KBS 2TV 드라마 '구르미 그린 달빛'의 수록곡을 나란히 불렀다. 올해 최고 히트 드라마 '태양의 후예'는 OST에 참여한 거미와 린의 노래 덕분에 인기를 더했다.

심지어 이들 '발라드 3대 여제'가 참여한 OST 목록은 최근 몇 년간 히트한 드라마 목록과도 겹친다. '아이리스'부터 '시크릿 가든', '해를 품은 달', '별에서 온 그대', '쓰리 데이즈'까지 수를 헤아리기조차 어렵다.

발라드 여가수들이 드라마 OST에서 인정받는 데는 이유가 있다. 드라마 외주제작사 관계자는 “드라마는 대부분 남녀 주인공의 멜로의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며 “그에 걸맞게 음악 역시 애절한 사랑의 감정을 담은 발라드 장르가 많고, 이를 뛰어난 가창력을 지닌 여가수들이 효과적으로 표현해낸 덕분이다”고 설명했다.

이혜리 기자 golf1024@donga.com

한국 발라드의 계보

가수	이문세	변진섭	신승훈	조성모	성시경
데뷔년도	1984년	1988년	1991년	1998년	2001년
대표곡	'나는 행복한 사람'	'홀로 된다는 것'	'미소속에 비친 그대'	'투 헤븐'	'처음처럼'
대표곡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너에게로 또 다시'	'미소속에 비친 그대'	'투 헤븐'	'내게 오는 길'
	'광화문 연가'	'그대 내게 다시'	'나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아시나요'	'넌 감동이었어'
	'옛 사랑'	'로라'	'나가 있을 뿐'	'불멸의 사랑'	'거리에서'
	'홀로 된다는 것'	'보이지 않는 사랑'	'날 울리지 마'	'아이 빌리브'	'희재'
두 줄 소개	·발라드의 황태자 ·얼굴이 길다?	·발라드계의 롤리 ·통통한 볼은 음악주머니 성대도 길다!	·발라드의 황제 ·7년 연속 밀리언셀러 (100만장 판매)	·얼굴 없는 가수	·OST의 왕자 ·감성 발라더

‘소녀’부터 ‘빨래’까지...가슴에 꽂히는 가사들

■발라드 스타들이 꼽은 ‘발라드 베스트7’

음악으로 얻는 감동은 생각보다 크다. 잔잔하게 감성을 자극하는 발라드 장르는 더욱 그렇다. 가사 한 줄 한 줄은 나의 이야기인 양 ‘폭풍’ 공감을 일으키고, 절절한 멜로디는 아련한 옛 추억을 떠오르게 한다.

우리들의 마음을 그렇게 사로잡는 발라드 스타들도 저마다 마음에 서너 편씩 애창곡을 품고 있다. 아끼는 곡이 너무 많아 딱 한 곡만 꼽기 어렵다는 이들이 고민 끝에 선택한 곡들만 들으면 ‘베스트7’이 완성된다.

잠시나마 위로받을 수 있기를.

●신승훈 : 이문세의 ‘소녀’(1985년, 3집 ‘난 아직 모르잖아요’ 수록곡)

“가사가 진짜 소녀스럽다. 딱 들으면 멜로디 자체가 소녀의 감성을 갖고 있지 않나.”

드라마 ‘응답하라 1988’ OST 주제곡으로 나와 다시 한번 열풍을 일으켰던 곡. 고등학교 시절 마음에 품었던 짝사랑을 떠올리게 한다.

●변진섭 : 유재하의 ‘사랑하기 때문에’(1987년, 1집 ‘사랑하기 때문에’ 수록곡)

“애들부터 아주 불렀던 곡이다. 가사에 공감한다.”

발라드 장르의 노랫말이 지닌 감성의 최고봉이라 할 만하다.

●임창정 : 김건모의 ‘아름다운 이별’(1995, 3집 ‘잘못된 만남’ 수록곡)

“멜로디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써내려간 가사에 마음이 움직이면서 즐겨 부른 노래가 됐다.”

저 깊은 내면에서 터져 나오는 듯, 애절한 음색도 일품이다.

●거미 : 김추자의 ‘남은 먼 곳에’(리메이크곡, 2008년 영화 ‘남은 먼 곳에’ OST)

“어릴 때부터 자주 불렀던 곡이다. 리메이크하면서 애창곡이 됐다. 애절한 멜로디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는 심정이 가사에 그대로 묻어났다.”

조관우, 윤민수 등 동료 가수들도 수 없이 리메이크한 노래. 멜로디와 가사가 풍부한 감성을 자극한다.

●왁스 : 김광진의 ‘편지’(2008년, 5집 ‘라스트 드케이드’ 수록곡)

“진정성이 느껴지는 가사가 일품!”

완벽한 음정, 박자, 고음 노래의 기본이라 생각하지만, 가슴으로 노래하는 게 어떤 것이란 걸 보여주는 노래다. 꾸밈없이 진솔하게 부르는 창법, ‘~하오’제 노랫말의 극한 매력력을 보여준다.

●린 : 이소라의 ‘별’(2004년, 6집 ‘눈썹날’ 수록곡)

“가사가 시보다 아름답다!”

렐처럼 읊조리는 ‘감성여왕’의 물 흐르는 창법이 이색적이고, 신선한 충격을 주는 노래다.

●한동근 : 이적의 ‘빨래’(2010년, 4집 ‘사랑’ 수록곡)

“힘들 때 들으면 좋은 노래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게 하는 가사에 꽂혔다.”

무심한 듯 서정적이고, 건조한 듯 풍부한 감성의 목소리. ‘뮤지션 이적’의 매력이 극명하게 드러난 곡이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 발라드와 한국형 발라드

발라드(ballad)는 중세 유럽의 서사적 민요의 이름이었으나, 음악에서는 이야기가 있는 통속적 가곡을 뜻했다. 현재는 서정적인 사랑 노래를 발라드라 일컫는다. 한국의 대중가요계에서는 1980년대 후반에 서정적이고 애절한 사랑 노래를 지칭하는 양식의 이름으로 굳어졌다. 피아노를 중심 악기로 한 반주와 화려한 화성 및 선율에 사랑의 애절한 감정을 섬세하게 형상화한 것이 특징이다.

한국형 발라드는 1970~80년대 서정적 포크 음악을 토대로, 유재하 이영훈(이문세 작곡가)이 완성시켰다는 게 중론이다. 포크보다 더욱 세련된 팝 발라드 멜로디에 피아노와 현악기가 가미된 편곡으로 새로운 장을 열었다. 신승훈은 “이들의 곡은 당시 한국에서 많이 쓰지 않은 코드인 데도 굉장히 한국적으로 풀어냈다. 기타로는 느낄 수 없는 편곡으로 새로운 차원의 감동을 느끼게 했고, 지금의 발라드가 완성됐다”고 평했다.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